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517-7651 ~ 5 팩스/512-1225

제2회

한교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되자”

우리 교회는 오는 5월 5일(목)에 제 2회 “한교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를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회 집행위원회는 팀과 집행위원회 조직을 다음과 같이 확정, 발표하고 세부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를 오늘 III예배후 3층 고등부 예배실에서 갖는다. 오늘 회의의 참석대상은 각 부서 부장, 지도, 차장이다.

* 우리 팀, 우리 교구

팀 명	청 팀	백 팀
해당교구	1, 2, 5, 6, 9, 10 교구	3, 4, 7, 8, 11, 12 교구
단 장	오정수 장로	김대호 장로
총 감독	이관규 집사	박두호 집사



제1회
한교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
1993년 5월 5일



'94년도 제2차 학습, 세례식

1994년도 제 2차 학습 세례식이 20일(수) 수요일, II부 예배에 거행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8일(월)오후 7시에 4층에서, 문답은 19일(화)오후 7시에 3층에서 한다.

'94년도 1/4분기 회계감사

1994년 1, 2, 3월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는 매 주일 사무국에서 하며 특별히 아직도 1993년도 회계감사를 앓은 부서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감사: 김대호 장로)

제2회 한교회 한가족 한마음 축제 집행위원회 조직

* 대 회 장: 이종윤 목사

* 지도위원: 임광식 이영세 박철훈 김광신 오정수 노문환 유윤진 김태기
정병무 이남호 이영열 홍정호 최종시 김대호 윤봉준 나희주
김영한 심삼권 이만열 우심화

* 집행위원장: 노문환 장로

* 지도교역자: 권상석 목사

부서	부장	지도	차장	위원
기획부	박철훈	원필현	서문석	김진환 송인권 조대영
진행부	김광신	김재호	이제원	이 열 김용진 김재중 최형열 강종찬 차광만 임상현 서성호 김승기 김세제
심판부	나희주	임진태	하영수	김중수 홍성주 이상호 백수남 고영철 안의경 임훈규 이정수 김치순 권귀옥
홍보부	이영열	장용휘	김상철	허규철 류중관 김광옥 정동호 이현규 김명자 박은경
기록부	정병무	유수영	김영준	서춘식 신순우 고석창 이계홍 박정인 신동기 이영희
시상부	윤봉준	우심화	성준경	김상욱 허 숙 김희영 김명화
재정부	임광식		이호연	신성의 임옥균
동원부	이남호 이용선	유순화	지역장, 부지역장	윤찬오 박동준 황재목 최재춘 장낙희 김성무 박영옥 주경자 이구연 최인영 현병란 황태진 박윤혜 한성옥 정태진 권영복 최윤정 한명순 왕경래 박민호 장선옥
시설관리부	최종시	최병호	허찬우	윤성남 조정식 박두호 박동식 구명덕 오규자 제오복 최승옥 위성남
봉사부	홍정호	김주아	김정희	김연옥 황정남 방태숙 최영한
의료부	이영세	김태순	이원철	이승철 안인호 김정임 정옥희 이운진
차량내부	김태기		한길동	이제권 이동찬 최재호 김용호 이승우 이인근 차상원 서창원 박동식
전령부	유윤진		이복규	허상한 우정하 임종수 김영식 김순희 김미경 윤영신

김치(KIMCHI)세미나 후원자 해도

오는 5월 25일부터 열흘간 러시아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열리게 될 김치세미나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날로 열기를 더해 가고 있으며, 세계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동참하는 후원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기도하면서 물질을 바쳐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의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는다.

매주 화요일 새벽에 모여 기도하며 진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 제5차 김치세미나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김치 본부에서는 더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4월 18일 목회자세미나

- 제 1교시 - 바울의 설교와 영적 갱신
(박용만 교수)
- 제 2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윤 목사)

창세기강해



노아 홍수의 범위

(창세기 7장 17 ~ 24절)

이 중 윤 (목사 · 당회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고 모든 일을 순종했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비가 올 터이니 모든 짐승들과 더불어 속히 방주에 들어가서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창조 이후 최대의 심판사건으로, 우리가 아는 기록 문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육지에 있는 생물,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은 다 죽었더라”(22절)라는 것입니다. 즉 이 홍수 사건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것에 일시적으로 홍수가 생겨서 함께 심판을 받는 모습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간 여덟 식구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각종 동물의 암수 한쌍만 살게 되었고 다른 것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방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1. 방주의 의미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People of God)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세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고서는 교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함께 더불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따라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백성의 수에 더해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Kingdom of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시고 그 주권을 믿고 그 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교제를 하는 곳이 교회이니 그 안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18절)라고 하셨습니다. 방주가 물에 침몰치 아니하고 떠 다닌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 있으나 교회가 만일 구명이 떨어져서 세속화 될 경우에 세상 물결이 들어와 교회가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

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결국 정말 지혜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초점을 마지막 심판에 맞추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2. 우주적인 홍수사건

노아 홍수 사건이 중동지방, 메소포타미아 근처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인 것을 지면의 모든 생물을 한꺼번에 홍수로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장면(21절)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나드 램이라는 학자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물의 여덟배가 되어야 지구를 덮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홍수 심판은 지역적인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어디로 없어졌으며 바다 물과 민물이 뒤섞여졌을 때, 식수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각 대륙에서 종류가 다양한 그술한 짐승들이 어떻게 한 곳으로 모여올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일에 고고학적 중명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증명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전제가 세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둘째는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전제 하에서 우리는 홍수 사건에 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이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홍수심판이 만일 지역적인 것에 불과했다면 백이십 년의 긴 세월에 걸쳐 그렇게 큰 방주를 지었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3. 약속의 무지개

홍수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사인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홍수가 여기 저기서 터졌습니까? 지역적인 홍수는 지구상에 계속되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홍수로 전 우주를 멸망시키는 것을 안하시겠다고 하신 것이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진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지역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잘못된 것이겠지만 노아 시대의 홍수심판은 온전히 우주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 성경의 언급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성경의 다른 기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① 욥기 22장 15, 16절에서 “내가 악인의 밭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끌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② 시편 104편 5~9절에서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③ 이사야 54장 9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노아 홍수를 이미 알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④ 히브리서 11장 7절과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3장 5~6절에서도 노아 홍수 사건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사건이 우주성을 가진 것처럼 마지막 우리에게 닥칠 심판은 어느 한쪽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쳐너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23절)라고 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홍수는 모든 것을 다 침몰시켰지만 방주는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수없이 덤벼들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누리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복음화된 통일조국

자비하신 하나님이지여!
부패한 부분들은 성결케 하옵시고
탈선된 저희를 진리로 교정하여 주옵시며,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불의가 있는 곳에 개혁을,
불충이 있는 곳에 헌신을 주옵소서.
빈약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사랑을,
좌절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소망과 일치를 주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모든 전쟁과 폭력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교만과 사치와 악행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집과 편견, 소외됨과 무기력
그리고 분쟁과 이기심, 혼란과 거짓의 수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노사가 사랑으로 만나고,
소송과 제자가 신뢰를 회복하고
동과 서, 남과 북이 화합할 수 있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70인 전도단 보고서 중에서

보고서 1

* 상황과 반응: 한 건물에 사는 43세 부인과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음식 등을 나누어 주며 교제함. 29세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외로운 환경이지만 신앙생활로 극복하기를 권유. 남편을 절에 모셔 두었다고 걱정.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을 전하고 영접기도.

* 결과: 3월 27일 우리 교회 II부 예배에 참석하였고 3주 정도 다녀 본 후 등록을 결정하기로 함

보고서 2

* 상황과 반응: 업무상 사람을 기다리며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있을 때, 그 건물의 경비하시는 분이 관심있게 물어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암송하여 읽어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음을 전함. 관심을 가지고 들음.

* 결과: 꼭 다시 한 번 오겠다고 약속함. 전도단에서 훈련을 받는 중이므로 좀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전하려 함.

보고서 3

* 상황과 반응: 한약사에게 사영리를 설명하려하였으나 한사코 거부하며 들으려하지 않음. 탁명한 씨 이야기를 하며 믿는 사람에 대해 험담하고, 유교사상이 농후 하여 지옥에 가도 괜찮다고 하며 강하게 거부함

* 결과: 심히 아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뿐.

보고서 4

* 상황과 반응: 믿지 않는 여동생과 매주 두번씩 같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때마다 극동방송의 찬송을 틀어주고 간증을 들려주며 대화를 유도하였음. 처음에는 귀찮다는 식의 반응이었으나 계속 기도하며 전하는 가운데 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했다며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함

* 결과: 서울교회에 출석하기를 자진 희망하여 현재 함께 출석하고 있음.

보고서 5

* 상황과 반응: 「어머니교실」에 참석한 전입생 학부형에게 아이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을 표명한 후 신앙생활에 대해 이야기 함. 시댁이 천주교이므로 아직은 안 나가지만 곧 나갈 결심을 하고 있으니 아이 먼저 보내겠다고 함. 늦은 시간이지만 아이를 다시 학교로 오라고 하여 「글없는 책」으로 전도하고 영접기도 후 다음 주일에 만날 약속을 함.

* 결과: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6

* 상황과 반응: 업무상 만난 사람이 미신과 잘못된 신앙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전도함. 그 사람의 과거의 일들을 한 시간에 걸쳐 들어줌. 굿, 미신 등이 정신적 갈등을 해결치 못함을 알려주니 이해는 하지만 자신을 위해 굿을 해준 할머니를 배신할 수 없다고 함.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짐.

* 결과: 다음에 만나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잘 돌이켜 보라고 권유함.

보고서 7

* 상황과 반응: 이혼을 결심하고 고민이 많은 한의사에게 먼저 약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함.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다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의논도 함께 함. 근본적인 치유책이 예수께 있음을 증거함. 기뻐하면서 순수하게 복음을 받고 다시 만나 이야기하기로 약속을 하였음.

* 결과: 교회는 아직 정하지 못하였으나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기로 한 것이 큰 열매임. 기도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도하려 함.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불 뿜뿜 타거라

☞ 70인 전도단 활동을 하면서 ☞

우리 날 예수함의 지혜를 얻고자

원복순 (집사·새가족부 교사)

문득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 본다. 아침 이슬 같이 스러져 갈 순간을 사는 우리 인생들이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보고 싶어서 70인 전도단에 가입했다.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정한 시간표가 있을 것을 생각해보니 마음이 바빠진다. 마치 타고 가는 열차에서 목적지에 닿았다는 방송이 나오면 내릴 준비로 분주해 지듯이 우리 각자에게 정해진 시간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리 길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면서 중인의 삶을 바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내심 조급해진다.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마땅히 가르칠 때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 같지는 않았는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남에게 짐만 되는 성숙하지 못한 신자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부족하나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땀흘려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길지 않은 우리 인생을 의미있게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십자가를 등에 진 형제들과 함께 서로 짐을 지며 우리 수고의 열매를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실 하나님 앞에서 효과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해 달라고 조용히 간구해 본다.

☞ 다락방장(남자)으로 활동하면서 ☞

생활을 나누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우정하 (집사·4교구 반포 1, 2, 3, 4, 다락방장)

연초에 남자 다락방장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개척한 세미나를 참석하고 난 후 다락방 모임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다보니 나이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으로부터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 아껴주며 깊은 관심과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곤 한다. 특히 통솔력을 은사로 받으신 듯한 권사님께서 ‘무엇하자’고 권유하고 나서시면 모든 다락방 식구들이 ‘송축입니다’ 하면서 일사 불란하게 움직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인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자를 돕는 일, 죄수들이 있는 형무소 방문, 병원 방문 등 세상에 나가 사랑을 실천하도록 지속적, 구체적 계획을 하고 적용한다. 바쁘다고 이 핑계 저 핑계대던 나도 더불어 은혜를 받지 않을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준 은혜를 받았듯이...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락방 예배 후 간증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다. 일상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역사와 말씀이 내게 깊은 깨달음을 준 것, 회개케 하신 것 등을 서로 나누면 자신의 신앙을 알고 좀 더 변화되고 열매맺는 삶이 될 것 같다. 우리 다락방을 위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일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고 싶다. 군림하는 자세, 사람앞에 나를 드러내려는 모습.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말 많은 나의 모습을 우리 다락방 식구들의 겸손과 진정한 봉사에 비추어 보며 내 부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점을 가진 자

남 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북을 방문한 사람들이 놀란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피바다」라는 가극은 내용도 차치하고 그 이름이 풍기는 끔찍한 상징성 때문에 가슴이 섬뜩했다고 한다. 핵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공식회담 석상에서 북측 대표가 발언한 「서울 불바다」는 그나마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남북회담을 결렬시켰고 한반도에 금방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걸프전 때 전쟁 상황 중계로 유명한 CNN을 비롯한 각국 언론들이 위기를 현지 보도하기 위해特派원을 급파시켰으나 너무나 평온한 서울을 보고는 실망(?)하여 돌아갔다는 소식이다. 필자도 당시 외국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이후 지금도 전쟁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정부는 이에 대한 해명이 없으니 갑갑하기만 하다.

전쟁의 쓰라린 경험을 한 세대들에게는 전쟁의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른다. 최악의 선택으로 민족과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위정자들은 깨어 있어야 할 때이다. 시시한 쟁점으로 말장난 하는 시간에 나라를 지키고 도발을 막는 데에 온 힘을 쏟는 책임있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

밤을 새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는 「점을 가진 자는 다 점으로 망하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있다.

중부지역에도 복음 방송된다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실황이 대전 극동방송국의 전파를 통해 중부권 일대에 퍼져 나가게 되었다. FM방송으로 송출될 대전 극동방송은 충남 북 일대와 영호남 일부, 경기도 일부에 복음을 심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50분간 「늘 푸른 초장」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될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은 중부 지역에 살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줄로 믿는다.

한편 서울 극동방송을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30분간 방송되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은 「생명은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방송된다.

☞ 초등부 교사 전도활동 현장 ☞

“복음을 뿌립니다. 썩이 나네요.”

토요일 하교시간, 논현 국민학교 앞 한 모퉁이에 우리 교회 초등부 선생님들의 자리가 생긴다. 아이들 한사람씩 만나 상담도 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 주면,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교회에 출석하기를 다짐한다. 선생님들은 이들을 교회로 데려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교회 출석을 허락받는다.

이렇게 해서 매 주 서너명에서 열 두명까지의 학생들이 새로 오는 초등부는 한달 만에 30%의 증가를 보였다. 물론 이들 중에는 한 번 왔다가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들 마음에 뿌려워진 씨앗이 썩이 나고 삼십 배, 육십 배, 백배로 결실할 날이 있을 것이다.

사진으로보는 '94 부활절 행사

▶ 초등부 / 드라마예배

▼ 성찬식 / I, II, III예배



▶ 부활절 음악예배 / 힐렐루야 찬양대



▼ 사랑부 / 학부모임과 청년부 형님, 누나들과 함께



교우동정

- 임송자 집사(제 1교구)의 모친의 칠순을 축하하는 가족 모임을 9일(토) 오후 1시에 가졌다.
- 서울특별시 베드민턴 연합회(회장: 송석인 집사) 주최 제4회 서울시장배 생활체육 베드민턴대회가 9일(토)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193.3MHz) 「늘 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제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 신축을 위한 터전을 허락하소서
2. 목회자세미나가 한국교회갱신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3. 전쟁의 소문과 갖가지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을 지켜주소서
4. 5월 28일에 시작할 제 5차 키퍼세미나를 은혜 중에 준비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